월요광장

‘나에게 스며온 너라는 어둠’

송 광 룡
시인·계간 문학들 발행인

송태웅 시인은 대학 선배다. 그 시절 형은 군대를 다녀왔고 나는 신입생 티를 못 벗은 처지였다. 하지만 우리는 친구처럼 지냈다. 친구 중에서도 술친구였다. 그만큼 형이 허물없었다는 뜻이겠다. 그런 관계는 내가 군대를 다녀오고 형이 졸업 후 고등학교 선생이 되어서도 지속됐다.

형은 연극, 나는 시 동아리에 적을 두었으나 형이 무대 위에 오른 적이 있었던가? 화를 낼지 모르겠으되, 아마도 ‘행인 1’이거나 ‘행인 2’ 정도로 상상할 수는 있겠다. 형은 연극을 무척 사랑했으나 무대 위의 주인공은 아니었다. 나 또한 시를 사랑했으나 시집을 낸 적이 없다, 아니 내지 못했다. 그러고 보면 나도 평생 시의 주위만 맴돈 셈이다.

막걸리 잔을 놓고 그 시절 우리가 앉은 원탁의 범위도 그런 변방의 접경지대쯤이었을 것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잔을 부딪치면서 우리는 무슨 얘기를 그렇게 나누었을까. 취기가 무르익어 오줌이 마려울 즈음이면 선수를 친 것은 언제나 형이었다. 벌떡 일어나 아무 말 없이 쪽지 하나를 불쑥 내밀고는 “화장실 갔다 온다” 하고 등을 돌렸다.

그 순간, 그러니까 호주머니 속에서 구겨진 쪽지 하나를 내밀면서 매우 겸연쩍어 하던 형의 취한 얼굴만은 지금도 또렷하다. 또렷이 떠오르는 또 한 가지는 몇 줄의 글귀보다도 휘갈겨 쓴 것 같은데 정말 예술적인 형의 필체다. 요즘으로 치면 감탄할 만한 수준의 캘리그래피였고, 옛날로 치면 낙관을 찍어 가보로 보관할 정도의 솜씨였다. 천성인 양 악필인 나는 형의 그런 필체가 무지 부러웠다.

형이 고집이 세고 울컥하는 성정이 있다는 것을 안 것은 내가 세상 물정에 눈을 뜬 시간과 비례한다. ‘전교조’ 파동으로 오랜 시간 학교를 떠났다 복직한 형은 무슨 까닭인지 학교를 그만두었고, 학원 강사로 여러 곳을 떠돌았으며, 이혼을 하였고, 홀로 섬과 뭍을 오가며 ‘보따리 장사’로 연명하더니, 종내는 지리산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 사이 형은 시인이 되었고 두 번째 시집 ‘파랑 또는 파란’을 내게 보내 주었다. 아무런 수사 없이 ‘송광룡 시인께-○○○’이라고 쓴 멋대가리라곤 잉크 똥만도 못한 헌사가 밥맛없었지만, 예의 그 필체만은 눈부셨다. 그것만으로도 형은 멋진 시인이었다. ‘아직 썽썽하구만!’ 나는 그것만으로도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고마웠다. 그리고 나는 시집을 펼쳐 놓고 마침내 울었다.

“나에게 스며온 너라는 어둠/ 너에게 전염되어간 나라는 불치병/ 조금씩 일찍 떠나버리는 버스를 바라보며/ 혼자는 혼자를 만나 드디어 혼자가 된다”(시 ‘혼자’)

기실, 우리는 모두 혼자가 아닌가. 인생이라는 게 마음과는 다르게 언제나 한발 ‘일찍 떠나버리는 버스’ 같은 것은 아닌가. 내게 스민 당신의 어둠이거나 나의 의지와는 달리 당신에게 전염돼 버린 ‘나라는 불치병’은 또 어쩔 것인가. 화선지에 물 배듯 내 마음을 적셨다고 말하면 너무 진부한 것인가. 이 짧은 시가 유독 나를 울린 이유를 나도 모르겠다.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쓴 연시라고 하기엔, 물론 그렇다 해도 부족함이 없지만, 알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내 혈관에서 몇 방울의 눈물을 밀어 올려 떨구게 했다.

그날 이후, 혹은 그 시절 이후, 나는 누구와 함께했던 것일까. 당신은 누구와 함께했는가. 어떻게 함께하고 있는가. 이것은 관계의 시다. 나에게 당신이 ‘어둠’이 되고, 당신에게 내가 ‘불치병’이 되는 세계, 언제나 ‘조금씩 일찍 떠나버리는 버스’의 세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은 존재의 시다. 그것이 ‘혼자는 혼자를 만나 드디어 혼자가 된다’는 시구가 슬프면서도 슬프지 않은 이유다.

“내가 가르친 아이는 끝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고 배달천국에 배달 영업사원으로 취직했다 나도 선생질을 작파하고 산에 오르내리면서 노가다를 뛰고 있을 때였다 배달을 해야 해서 경차 모닝을 샀다고 했다 연말에 내게 놀러온다고 해서 호기롭게 오라고 했다 사제동행이었다 절망 뒤에 희망이 온다는 말은 어른들의 헛된 주문이었다”(시 ‘아직 오지 않은 날’).

이 시의 앞 연에는 이런 시구가 있다. “아이는 어느새 늙어 찌든 담배냄새를 풍기며 도시의 뒷골목을 배회하는 무뢰한이 될 것이다 그는 누런 웃음을 흘리며 자기의 생 앞에 비굴하게 무릎 꿇을 것이다 누군가 이유 없이 치고 밟아도 헤헤거리며 쓰러져서 아스팔트에 달라붙은 길고양이처럼 사라져갈 것이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겠다. 우리는 모두 단독자이니까. 당신도 나도 혼자다. ‘혼자’를 인정한다는 것은 당신은 당신으로, 나는 나로 인정한다는 것이니 그날, 당신이 아파서 홀로 울고 있을 때 내가 거기 없었다는 사실을 나는 인정하겠다. 내가 거기 없었으나 당신 생각으로 나도 괴로웠다는 것을 당신도 조금은 인정해 주면 좋겠다.

“가마니에 둘둘 말아서 달구지에 싣고가 툭 던져진 꽃들의 유해”(시 ‘별’). 여기까지 쓰니 무슨 신파 같다. 신파라도 괜찮다. 중심이 아닌 변방에 있는 자들에게 외로움은 친구니까. 외로워야 또렷이 보이니까. 나는 나, 너는 너, ‘단 한 번도 실수 없는 배우가 되어’(시 ‘나의 저녁’) 나의 ‘대사’를 내뱉을 수 있는 세계는 없으니까. 당신과 나, 새해에는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 보자.

법조칼럼

선물

박 철
변호사·법무법인 법가

어제는 성탄절이었습니다. 종교가 없는 저 조차도, 도시 이곳저곳에서 반짝이는 크리스마스 트리의 불빛과 거리 행인들의 손마다 들린 크고 작은 선물 보따리가 주는 장면의 따뜻함에 취해 근처 상가에 가서 조카들에게 줄 작은 선물들을 몇 개 샀습니다. 덤으로 얻은 따뜻하고 뿌듯한 느낌은 가벼워진 지갑의 무게에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해마다 이맘쯤이 되면 ‘송구영신’(送舊迎新)의 덕담을 건네며 주위 사람들과 선물을 주고받는 일이 많아집니다. 어쩌면 이 시기에 주고받는 선물의 의미는 한 해 고생이 많았음에 대해, 또 한 해 잘 버텨낸 것에 대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의미에 무게가 담겼다고 보아도 무방하겠지요. 특히 유례가 없는 경기 침체와 정치적인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올 연말연시 선물을 통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꼭 필요한 치유행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요즘은 스스로에게 선물을 하는 것이 일종의 유행이라고 합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은 물론이거니와 연애도 기피하는 젊은 세대들이 삶에 지친 자신을 응원하기 위해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유행은 어쩌면 특별히 선물을 주고받을 상대가 없는 절대적인 외로움과 고독감을 달래려는 것에 원인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직업상 가사사건의 변론을 종종 맡는 저는 과소비하는 아내의 성향을 이혼사유로 꼽는 남성들의 주장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과소비하는 남편의 성향을 이혼사유로 주장하는 여성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살펴보면 결혼 전부터 본래 사치나 과소비의 행태를 보이기보다는, 결혼 후 자신에게 애정을 보이지 않는 배우자에 대한 항의나 반발심의 한 방법으로 시작했다가 종국에는 소비로부터 자신의 처지를 위로 받는 정신적 문제로 발전하는 경우가 더 많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외롭다고 합니다. 군중 속에서도 고독감을 느끼는 것이 인간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이 다 다르다’는 절대명제에 기인한 것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와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느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간은 자신만의 우주를 갖는 존재라고도 합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혼자는 살 수 없어 외로움을 극복하며, 인간과 부대끼며 살아가야 하는 사회적 존재이고 공감의 능력은 이처럼 외로운 인간을 하나로 묶는 좋은 융화제입니다. 오죽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국민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 촛불집회로 상징되는 ‘국민대통합’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겠습니까. 국민대통합이 ‘실정에 대한 분노’라는 국민의 공감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설명할 필요도 없겠지요.

올 한해 우리 국민은 실정에 대해 큰 상처를 받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서로의 다름에서 오는 외로움을 극복하고, 우리 공동의 문제에 대해 공감하여,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경험’이라는 큰 선물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해, 병신(丙申)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역사에 남을 만큼 혼란스러운 한 해가 지나갑니다. 그럼에도 우리 국민은 하루하루 뚜벅뚜벅 잘 버티고 견뎌내왔습니다. 다시 한 번 국가는, 민주주의는 국민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지 위정자들 몇몇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 국민 모두 힘든 한 해를 잘 버텨온 자신과 가족, 동료들, 주변 이웃들에게 작은 꾸러미, 아니 마음이 담긴 감사의 말 한마디라도 함께 나누는 시간을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새 해에는 개개인의 건강과 발전뿐만 아니라, 국민의 충실한 종복, 선량한 정치인을 볼 수 있는 혜안을 덤으로 얻어 새로운 리더를 선출함으로써 좋은 선장을 맞이하는 큰 선물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기 고

연말연시 사랑나눔에 모두가 동참하자

김 은 숙
목포 YMCA 사무총장

매년 한 해가 저물어 가는 12월이면 서로 경쟁하듯 모임이 주최되곤 한다. 한 해의 많은 일을 마무리하고 지난날을 되돌아보며 새로운 각오와 새해설계를 하고자 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올 연말은 국정농단 사태와 각종 비리로 나라 안팎이 시끄러운데다 경기불황 여파로 연말 온도가 달라졌다. 경기침체와 더불어 일명 ‘김영란법’ 시행과 시국상황 탓에 흥청망청 술을 비워내는 분위기가 눈에 띄게 줄었다. 그 때문인지 각종 기부와 온정의 손길마저 함께 줄어들고 있어 매해 성금모금과 자원봉사를 진행하는 우리 단체로서는 특히나 추운 겨울을 맞고 있다.

연말기부금액을 가늠할 수 있는 사랑의 온도탑은 지난 19일, 전국 모금액 합계 기준 작년 43도에서 18도에 머물러 있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도나 낮은 기록으로 얼어붙은 분위기를 체감할 수 있다.

그럼에도, 지역의 많은 기업체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참여는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특히 농협목포유통센터에서 지난달 김장나눔행사를 지원한 데 이어 지난 23일에는 쌀 200포대를 어려운 이웃에게 함께 전달했다. 많은 기업체들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이다.

목포 YWCA는 연중 소년소녀가장 반찬지원, 독거노인 돌보기, 여성일자리 지원 등 많은 활동을 하고 있지만 연말봉사는 유독 힘이 든다.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는 골방에서 추운 칼바람과 사투를 벌이는 그들을 마주할 때면 마음이 한없이 무거워지고, 눈앞이 뿌옇게 흐려져 도무지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봉사나 기부라고 하면 어렵게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주변에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많다. 봉사와 기부는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봉사와 기부는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 따뜻한 마음과 작은 관심이면 누구든 시작할 수 있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은 사실 멀리 있지 않다. TV 속에만 있는 것도 아니다. 아프리카 오지에만 있는 것도 아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도움이 필요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혹은 우리의 관심부족으로 추운 겨울을 홀로 외로이 보내는 이웃들이 많다. 그들을 잘 모르는 시민들을 대신해 우리 봉사단체가 발로 뛰어 모금 동참을 유도하고, 연결고리가 되어 시민들의 온정과 사랑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도록 힘쓰겠다.

연말 여러 기관·단체에서 실시되는 모금에 많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진심으로 바란다. 시민들의 사랑은 복지 사각지대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삶의 온기를 불어넣게 될 것이다. 많은 이들이 따뜻한 나눔 행렬에 동참해 사랑의 온도탑도 100도로 올리고, 직접 땀흘리는 봉사를 통해 삶의 의미, 봉사의 희생정신, 사랑 나눔의 기쁨을 직접 체험해보길 바란다. 영화 속에서 지구를 지키는 초능력자들이 아니라 몸소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여러 시민들이 히어로일 것이다.

정국이 어지럽더라도, 경기가 불황이더라도, 어려울수록 우리는 이웃을 위해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 아무리 어려워도 온정의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 외롭게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는 이웃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는 이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껴안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이기 때문이다.

社 說

개헌 논쟁, 대선 주자 유·불리만 따져서야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대선 주자들 사이에 개헌 논쟁이 뜨겁다. 국민의당이 이미 개헌을 당론으로 정했으며 야권 대선 주자들도 앞다퉈 개헌 카드를 꺼내 들었다.

야권 잠룡들은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주자별로 입장이 다르지만 지방분권이 강화돼야 한다는 데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방의 입장에선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분권형 개헌에 대선 주자들 간 이견이 없다는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중앙 정부의 예산권 등을 국회와 지방정부가 나누는 방식으로 대통령 권한을 덜고 지방에 힘을 실어 주자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대선 주자별로 개헌 시기와 방식에 있어 이견을 보이는 것이 자신들의 정략적 입장에 따른 것이라면 이들의 주장을 꼼꼼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 현재 개헌 논쟁은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와 나머지 주자들이 대치하는 이른바 ‘문(文)과 비문(非文)’ 구도로 형성되고 있다.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손학규 전 대표와 김부겸 의원만 당장 하자는 반면 나머지 주자들은 차기 정부에서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문과 비문 간 대결 구도는 개헌의 핵심 안건인 결선투표제 도입과 대통령 임기 단축을 놓고도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는 결선투표제의 경우 개헌 이후에 하고 대통령 임기 단축도 내각제 개헌을 전제로 한 것이라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면 나머지 후보들은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려면 이번 대선부터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민주당 소속의 박원순 서울 시장은 “다음 정부에서 개헌을 하고 대통령 임기는 3년으로 단축해 2020년에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르자”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를 겪으면서 대통령제의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개헌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야권 대선 주자들이 자신에 대한 유·불리나 이해득실을 떠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어떻게 개헌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무안 청정 바다 오염 방지 조치 시급하다

무안 앞바다 인근 국유지가 불법 쓰레기장으로 이용되면서 바다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 하지만 행정 당국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무안군과 현경면 주민 등에 따르면 바닷가 인근인 무안군 현경면 오류리 내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유 국유지가 불법 쓰레기장과 소각장으로 악용되면서 이곳 쓰레기장의 폐수가 인근 청정해역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무안군은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방치하고 있다.

본보 기자가 둘러본 결과 실제로 현경면 오류리 392-4번지 내 1774㎡(537평) 규모의 국유지에는 각종 불법 쓰레기들이 방치돼 있었다. 특히 200평 규모로 조성된 웅덩이에는 인근 바닷물과 쓰레기 폐수가 뒤섞여 심한 악취를 풍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 웅덩이는 한 지역민이 한국자산공사와 임대차 계약도 없이 농사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불법으로 판 것이지만 바닷물이 스며들자 방치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이곳에 쓰레기가 쌓이기 시작하자 ‘깨진 유리창의 법칙’처럼 외지인들까지 불법 쓰레기를 투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민들은 불법쓰레기 소각 등으로 배출된 폐기물이 빗물 등에 쓸려 웅덩이로 모여든 뒤 바다로 흘러가면서 해양오염 등 제2의 환경오염으로 번지고 있다며 현경면사무소에 시정을 요청했다. 하지만 현경면은 마을 이장에게 쓰레기 수거를 지시했을 뿐이다.

무안은 ‘천혜의 청정 갯벌자원’을 지닌 곳으로 유명하다. 더 이상의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무안군은 서둘러 불법 쓰레기장 복구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달걀 대란

우리가 지금은 손쉽게 구해 먹을 수 있는 바나나는 1870년 한 미국인이 자메이카에서 수입하면서 세계적인 과일이 됐다. 당시 바나나는 가격이 비싼 과일이었다. 이 때문에 중앙아메리카 열대우림 지역에 바나나 농장이 개발됐다. 여기에서는 400여 품종 가운데 ‘그로 미셸’이라는 품종만이 재배됐다. 진한 맛과 달콤한 향 때문에 찾는 사람이 많은데다 단단해서 장거리 운송이 용이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1903년 파나마에서 ‘바나나 암’으로 불리는 ‘파나마병’이 퍼지면서, 이 병에 강한 ‘캐번디시’가 대체 품종으로 선택된다. 캐번디시는 요즘 우리가 먹는 바나나로 세계 생산량의 75%를 차지한다. 단일 품종 재배의 위험성 때문에 자칫 바나나가 사라질 수 있다는 학자들의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19세기 중반 아일랜드의 감자 대기근은 다양성을 무시한 채, 한 품종만을 고집해 수백만 명이 굶어 죽는 재앙을 불렀다. 당시 아일랜드에서 감자는 먹기가 편해 가난한 농부들에게 사랑받는 작목이었다.

하지만 아일랜드를 지배했던 영국 정부는 생산성을 내세워 수많은 품종 중 작황이 뛰어난 ‘럼퍼’라는 품종만을 강요했다.

그런데 1847년 감자마름병이 창궐하면서 거의 모든 감자가 썩고 말았다. 이로 인해 아일랜드 인구 800만 명 중 150만 명가량이 굶어 죽고, 200만 명 정도가 이민하는 역사상 가장 큰 재앙을 겪었다.

사상 최악의 AI(조류인플루엔자) 사태로 달걀 대란이 일고 있다. 달걀 품귀 현상으로 마트에서는 소비자에게 판매 수량을 제한하고, 정부는 달걀 사재기 단속에 나섰다.

이제 수입을 늘려야 할 상황이 됐다. 닭이나 오리는 다른 육류로 대체가 가능하다. 하지만 달걀은 대체할 수 있는 식품이 없다.

달걀 대란을 막으려면 AI의 전염을 막을 수 있도록 양계 환경을 업그레이드시키는 길 밖에 도리가 없다. 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양계 환경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친환경 사육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등 멀리 헤아리는 정책이 시급하다.

/채희종 사회2부장 chae@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집부 220-0649 정치부 220-0632 사회부 220-0642 사회2부 220-0652 경제부 220-0663 〈FAX 222-4938〉 문화부 220-0661 문화미디어부 220-0664 체육부 220-0697 사진부 220-0693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7-95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